

營建儀軌에 실린 木部材用語의 用例와 變遷에 關한 研究

김재웅

(공학박사)

이봉수

(주,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제어 : 영건의궐, 건축용어, 목부재

1. 서론

영건의궐은 조선시대에 편수된 다양한 의궤 중 건축물의 신축과 수리 등 건축 관련 기록서로서 건축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史料이다.

현존하는 영건의궐은 조선후기의 것으로 건축용어뿐 아니라 時日, 詔勅, 圖說, 上樑文, 儀註, 頒詔文, 財用, 照會, 訓令, 照會, 來照, 來牒, 報告, 甘結, 賞典, 稟目, 實入, 工匠 등 營建과 관계된 제반 내용들의 총체적 기록물이다.

영건의궐은 궁궐건축과 일부 성곽건축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지역적 한계와 官撰史料로서 當代 수도권 일대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으나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 중 가장 우수하고, 특히 이에 실린 건축용어는 건축부재 명칭뿐 아니라 材木의 분류 명칭을 비롯한 연장명 등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공사로 투입된 수량과 함께 부재의 크기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연구적 가치가 높다.

영건의궐에 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건축학 분야의 연구는 의궐에 실린 建築圖의 연구와 건축用語, 그리고 의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 복원 등의 연구가 두드러

진다. 국문학분야의 연구는 한글의 실현에 관심을 둔 연구로 건축용어의 대표어형을 찾는 중요한 단서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용어의 변천을 개괄적으로 살펴거나 지역적으로 특정 부위만 세밀히 연구된 점이 지적된다. 국문학적인 연구의 경우 그 특성상 借字표기의 탐구를 통한 한글 실현의 파악에 관심이 집중되어 借字표기 이외의 용어들 특히, 목조에서 가장 중요한 목부재 용어의 세분 명칭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영건의궐에 실린 건축용어 중 목부재 용어를 대상으로 용례를 고찰하여 조선후기 건축용어를 조명하고, 전반적인 출현시기의 연구를 통해 통시적인 용어의 생성과 도태 등 변천을 이표기들과 함께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에 실현되고 있는 건축용어의 代表語形 탐구와 현대 漢字表記 通用 연구에 기초를 제공코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27편의 영건의궐(표1) 대상으로 <財用>, <實入>條에 실린 목부재 용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實入>條가 없는 경우에는 <稟目>條를 참고하였다.

[표 1] 儀軌 목록

編纂年度	儀軌名
1633년	昌慶宮修理所儀軌
1647년	昌德宮修理都監儀軌
1648년	儲承殿儀軌
1652년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1657년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1667년	永寧殿修改都監儀軌
1677년	南別殿重建廳儀軌
1725년	宗廟改修都監儀軌
1748년	眞殿重修都監儀軌
1752년	懿昭廟營建廳儀軌
1764년	健元陵丁字閣重修都監儀軌
1764년	垂恩廟營建廳儀軌
1776년	景慕宮改建都監儀軌
1790년	文禧廟營建廳廳錄
1800년	華城城役儀軌
1805년	仁政殿營建都監儀軌
1824년	顯忠宮別廟營建都監儀軌
1832년	西闕營建都監儀軌
1833년	昌德宮營建都監儀軌
1834년	昌慶宮營建都監儀軌
1836년	宗廟永寧殿修改都監儀軌
1857년	仁政殿重修儀軌
1900년	永禧殿營建都監儀軌
1901년	增建都監儀軌
1901년	眞殿重建都監儀軌
1902년	中和殿營建都監儀軌
1904년	慶運宮重建都監儀軌

연구는 기존연구 고찰, 의례 자료수집과 고찰, 목부재용어의 추출, 추출된 용어의 분류, 용례 고찰, 용례의 출현시기와 용어 변천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용례 고찰은 영건의례와 더불어 시대별 중요 史料를 함께 고찰하였고, 史料는 통일신라시대의 《三國史記》, 고려시대의 《高麗史》, 《高麗大藏經》, 조선시대의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 주요 史料를 탐색하였다.¹⁾ 더불어 중국의 宋代 《營造法式》과 清代 《工程做法則例》, 일본의 《匠明》 등 외국 용례를 함께 참고하였고, 《譯語類解》, 《同文類解》, 《倭語類解》 등 조

1) 《三國史記》와 《高麗史》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PDF원문자료를 이용하였고, 《高麗大藏經》은 '고려대장경연구소'(http://www.sutra.re.kr)의 자료를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는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시대의 외국어 어휘집도 함께 참고하였다.²⁾

營建儀軌는 전산 DataBase化가 아직 완전치 못한 관계로 原典을 탐색하여 해당 용어와 용례를 추출하였고, 의례 이외의 史料는 해당 한국 史書의 경우 모두 전산 DB가 구축되어 있고 그 분량이 방대하여 먼저 原文DB에서 용어를 검색하고, 검색된 용어를 原典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 營建儀軌의 建築用語

영건의례에 실린 건축용어는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적은 <財用>과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각종 物種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實入> 혹은 <所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사에 들어갈 각종 물품목록을 날자별로 기록한 <稟目>에서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고, 間閣과 窓戶, 雜物 등 物名을 구분하여 기록한 예³⁾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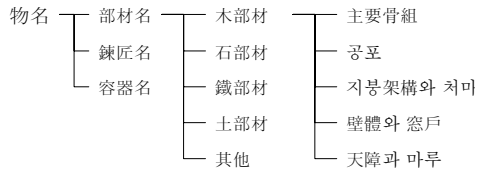
實入된 내용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사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實入된 물명은 건축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크게 세가지로 部材名과 鍊匠名, 容器名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부재명은 주요 골조, 공포, 지붕가구와 처마, 벽체와 창호, 천장과 마루 등의 물명이 열거된다.⁴⁾ <實入>에

2) 《營造法式》은 中國書店(2006년판)의 원전을 이용하였고, 東南大學出版社(2005년판)의 <營造法式 解讀>(潘谷西·何建中 著)을 참고하였다. 《工程做法則例》는 青華大學出版社(2006년판)의 <清式營造則例>(梁思成 著)와 <清工部《工程做法則例》圖解>(梁思成 著)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匠明》은 鹿島出版會(2004년판)의 《匠明》(伊藤要太郎 著)의 원문을 이용하였다.

3) 《儲承殿儀軌》는 조성간각질[造成間閣秩], 전각량사신조창호질[殿閣廊舍新造窓戶秩], 전각여문호현관조작급채색잡물실질[殿閣與門號懸板造作及彩色雜物實秩] 등 間閣과 窓戶, 雜物 등으로 세분하여 물명을 기입한 예이다.

4) 김동욱(1990)은 목조 부재 명칭을 사진(/)으로 구분하고 건물 뼈대부, 공포부, 지붕가구 및 처마부, 벽체부, 천장 및 바닥부, 창호부의 일정한 순서가 지켜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당시 의례를 기술할 때 이와 같은 순

기록된 물명을 체계화하여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그림 1> 實入의 物名 구성과 체계

部材名과 鍊匠名 만이 건축용어에 해당되고, 容器名들은 건축용어와 거리가 있다. 특히 목부재의 열거 순서는 시공의 순서와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實入된 물명을 매일 기록하였을 것이고 의례서로 역을 때 이를 토대로 정리하였을 것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공당시 기록했던 순서대로 나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 목부재 용어 총괄표

부재명	용례
主要骨組	
기둥	柱 / 外柱, 內柱, 前面柱, 間柱, 衝柱
고주	高柱, 圓高柱
평주	平柱, 高平柱, 退平柱, 後面平柱
누주	樓柱
원주	圓柱
방주	女牆左右夾門方柱
팔모주	八隅柱
보	楹, 楹, 樑 / 中樑, 間樑
대량	大楹, 大樑, 大樑 / (短, 別, 民)大樑
종량	從(從)楹, 從樑, 宗樑, 宗樑, 從樑
퇴량	退楹, 退樑, 退樑
충량	衝楹, 衝樑,
덕량	德樑
곡량	曲楹, 曲樑
평량	平樑
합량	合樑
합장보	合閣楹, 合掌楹, 合長(掌)樑, 合粧樑
덧보	加樑,
헛보	虛楹
가보	假樑
도리	道里 / 夾間道里, 半道里, 短道里
굴도리	圓道里, 仇尤道里

서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5쪽)

5) 창호는 목부재 명칭의 나열순서 중 주로 가장 나중에 기입되나, 본 연구에서는 몸체부(축부)인 벽체와 묶어서 구성하여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본문 구성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헛가도리	虛家道里, 連虛道里
추녀	春舌
장혀	長舌 / 夾間長舌, 半長舌
가첨장혀	加簷長舌, 加添長舌
가반장혀	加班長舌
창방	昌防, 耳昌防
평방	平防
楨包	
공포	工包, 工踏
익공	立工, 葉工, 翼工
초익공	初立工, 初立孔, 單立工, 初翼工
이익공	二立工, 二葉工, 再翼工
몰익공	無立工, 無里工, 無翼工,
대량익공	大樑翼工
동자주익공	童子柱翼工
첨차	簷遮, 大簷, 小簷 / 大小添差
행공	行工
고주행공	高柱行工
두공	頭工, 大(小)頭工, 初頭工, 二頭工~八頭工
살미	沙乙尾 / 山彌
제공	齊工
운공	雲工, 外雲工, 內雲工
안초공	案草工, 按草工 / 二立付案草工
고주안초공	高柱按草工
창방안초공	昌防按草工
도리안초공	道里按草工
종량안초공	宗樑按草工
주두	柱頭 / 大柱頭, 小柱頭
살미주두	山彌柱頭
퇴량주두	退樑柱頭
고주주두	高柱柱頭
동자주두	童子柱頭
소로	小露, 小老, 小累
행소로	行小累
단갈소로	單掎小累
양갈소로	兩掎小累
삼갈소로	三掎小累
청소로	廳小累
대접소로	大貼小累
화반	花斑, 畫盤, 花盤 / 長花斑, 短花斑
화반간판	花盤間板, 花盤間板壁, 前面退花盤間壁板
고삼	耳防, 大耳防, 小耳防
귀한대	耳漢臺
도매첨	都每簷
병첨	並簷
보아지	浮阿只/ 樑阿支, 樑兒(與)之 / 甫兒之,(只)
양봉	樑奉
순각판	巡閣板
순각소란	巡閣小欄

지붕架構와 처마	
서까래	椽/大椽木, 中椽木, 小椽木, 大椽, 上大椽, 中椽
장연	長椽, 長椽木
단연	短椽, 短椽木
상단연	上短椽, 上端椽
중단연	中短椽
방연	方椽
수파연	首波椽
마족연	馬足椽, 馬族椽, 馬蹄椽
선자연	扇子椽
부연	付椽, 浮椽, 婦椽
부연간판	浮椽間板
부연착고	着罟, 着罟板
연침	椽針粗木, 聯針粗木
모기연	木只, 木只椽
허가연	虛家椽
동자주	童子柱
허가주	虛家柱
대공	大工 / 臺工, 短臺工, 立臺工 / 坵工
박공	朴空, 朴工 / 朴工板, 短朴工
달래박공	月乃朴工, 多來朴工
평고대	平交臺, 平高臺, 平交坵
초평고대	初平交臺, 初平交坵
재평고대	再平交臺
덧평고대	靛平交臺
부연평고대	婦椽平交臺
연합	連含, 椽含, 椽檻
띠목	帶木
산방	散防, 散方
산자	散子板, 散子木, 散子吐木 / 散坐板
서살	西芝, 西芝吐木
적심	賊心, 積心邊板, 積心木
누리게	累里介, 累里蓋 / 累里介邊板, 累里蓋補板
추너누리게	春舌累里介
장연누리게	長椽累里介
부연누리게	浮椽累里介, 付椽累里介
목기누리게	木只累里介
중동누리게	中同累里介
합누리게	合累里介邊板
개관	蓋板
선자개관	扇子蓋板
연개관	椽蓋板
부연개관	浮椽蓋板, 付椽蓋板, 婦椽蓋板
상단연개관	上端椽蓋板
장연개관	長椽蓋板
단연개관	短椽蓋板
종개관	宗蓋板
고삼판*	古索板
승두	蠅頭
종심목	宗心木, 中心木, 中宗心木,
추너종심목	春舌宗心木
마루종심목	林樓宗心木, 抹樓宗心
조리목	朴工浮椽中條里木

집부사	執扶舍, 椽執扶舍
풍판	風板
풍판사목	斜木, 風板斜木
솔대	松竹
봉죽	縫竹
사래	蛇羅, 斜羅
壁體	
가지방	假地方, 假地防, 加地防, 加支防
머름	遠音
머름중방	遠音中方
머름동자	遠音童子, 遠音大(小)童子
머름청판	遠音廳板, 遠音板, 遠音間板
머름대	遠音竹, 短遠音竹
머름소란	遠音小欄
문선	門楹
문실주	先單, 楹單, 楹端, 假退楹端
문얼굴	門蔭骨 / 三門蔭骨, 分閣蔭骨
窓戶名+얼굴	斜窓蔭骨, 雙窓蔭骨
벽선	壁箱, 壁楹, 壁宣 / 長(短)壁楹
토벽선	土壁箱, 土壁楹
주벽선	柱壁楹, 高柱壁楹
문벽선	門壁楹 / 分閣壁楹, 斜窓壁楹
문얼굴벽선	門於骨壁楹
벽판	壁板
삭	槩, 槩木
외	椳, 椳木
용지판	龍支板, 龍枝板, 龍脂板
인방	引方, 引防 / 大引方, 半引防, 短引防
중방	中方, 中防, 中中方 / 地臺中方, 戰棚退中防, 半中防
상인방	上引防
인중방	引中防
화인방	畫引防, 畫引枋
窓戶名+인방	分閣引防, 斜窓引防
중깃	中衿
지방	地方, 地防 / 短地防
상지방	上地防
하지방	下地防
문지방	門之方
窓戶	
바라지	波羅池, 波羅地, 把羅知
변자문	邊子門
봉창	封窓
분합	分合, 分閤
형태+분합	細箭分閤, 滿箭(廳板)分閤, 細滿箭短分閤 等
사롱	紗籠, 斜籠
사창	斜窓 / 大斜窓, 中斜窓
갑창	甲窓, 匣窓 / 長匣窓
길창	學窓, 學乙窓, 學+乙窓
광창	廣窓 / 大廣窓
불박이광창	付+口+匕 朴只廣窓
대문	大門
독창	獨廳, 獨窓 / 烟燭窓

독호	獨戶
둔테	屯太, 屯太木 / 上下屯太
들문	擧門
들창	擧窓, 擧乙窓
들창	擧窓, 擧乙窓
묵창	黑窓
밀호	密戶
살눈가리개판	箭眼蔽板
살문	箭門
살창	箭窓
선자귀	立佐耳, 先佐耳, 先左耳
형태+선자귀	大(中)先左耳, 滿箭先左耳, 遠驗先左耳 等
쌍창	雙窓 / 雨+雙窓, 樓雨+雙窓
연창	烟窓
영창	影窓
형태+영창	卍字影窓, 長影窓, 分閣影窓, 雙窓影窓 等
우리판문	亏里板門
원산	遠山 / 大遠山, 中遠山
장군목	將軍木, 杖欄木, 杖闌木
장지	障子
형태+장지	面障子, 烟窓障子, 卍字障子, 隔障子 等
창살	窓箭, 窓箭木
판문	板門
판장문	板障門, 板牆門
패창	彡+市窓
호	戶
天障	
다란	多欄
장다란	長多案, 長多欄 / 房班子長多欄 等
둥다란	童多欄, 同多欄
형태+다란	純角班子多欄, 房班子多欄, 林樓班子多欄 等
반자대란	班子大欄 / 班子大欄付接
장대란	長大欄, 班子長大欄
둥대란	同大欄, 童大欄
열대란	列大欄
반자	班子, 盤子
반자틀	班子機
반자판	盤子板
반자소란	小欄, 小案, 班子小欄
반자인방	班子引防
반자청판	廳板, 班子廳板
반자현란	盤子懸欄
순각청판	崇閣廳板
현목	懸木
신방	信防
마루	
귀틀	耳機, 歸機
장귀틀	長耳機
둥귀틀	同歸機, 同耳機, 童耳機
장둥귀틀	長童耳機
단둥귀틀	短童耳機
선귀틀	立耳機

합귀틀	合歸機
동바리	童發里, 長童發里
마루	末樓, 抹樓, 林樓
마루청판	廳板 靑板 / 長靑板, 短靑板
여모	斂隅, 廉隅, 廉隅
여모판	劍隅板, 廉隅板
장선	長床伊, 長散伊, 長山
欄干 및 階段	
계자가	鷄子脚, 欄干鷄子橋, 鷄子多里
난간	欄杆, 欄干
난간동자	欄干童子
난간간판	欄干間板
난간대	欄干竹
난간솔대	欄干松竹
난간하엽	荷葉, 欄干荷葉
법수	法首
보판	步板
굴대	圓竹
층교틀	層橋機
허아청판	虛兒廳板
허혈청판	虛穴廳板
후판	後板

위 표(표2)는 영건의궐에서 추출된 목부재 용어를 위 다섯 가지 구분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동일 부재의 표기일지라도 그 音價가 크게 상이한 경우는 분리하여 정리하였다.⁶⁾

용례 탐색 결과 音價를 기준으로 약 240개 정도의 목부재 용어가 추출되었고, 해석이 모호한 경우도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⁷⁾

3. 木部材 用語의 用例 考察

용례 고찰 내용은 그 분량이 커 지면의 한계상 특이점이 있는 용어나 의문점이 남는 용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기둥과 추녀, 장혀, 공포, 두공, 익공, 살미, 첨차, 서까래, 평고대, 연합, 인방, 지방, 벽선, 문선, 반자, 귀틀의 용례를 실었고,⁸⁾ 영건의궐을 중심으로 고찰된 내

6) 예를 들어 보아지와 양봉은 같은 부재이지만 音價가 크게 상이하어 구분하였고, 부연간판과 부연착고, 재평고대와 덧평고대, 부연평고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해석이 모호한 용례는 風邊板, 風遮板, 前面風遮, 畫引壁, 盧引防, 卓子梗, 烟柵, 烟柵板 등이다.

용으로 그 외 여러 史料의 용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추출된 240개의 용례 또한 낱낱이 모두 거론치 못한 한계를 지닌다.

3-1. 기둥

영건의궐에서 기둥은 주로 柱로 표기되는 일관성을 보이고, 《華城城役儀軌》에서 楹의 쓰임이 두드러지나 實入된 목부재의 표기는 아니다. 柱는 《說文解字》木部에 「楹也。從木主聲。」, 楹은 「柱也。從木盈聲。」라 하여 서로 互訓(호훈)하고 있다. 또한 宋代 《營造法式》總釋 上에서 柱에 대해 《詩經》이나 《釋名》 등의 용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 柱와 楹을 함께 다루고 있다.⁹⁾ 이와 같이 柱와 楹은 모두 기둥을 뜻하는 의미이나, 楹은 대체로 크거나 格을 높여 부르는 명칭이고 柱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楹은 《高麗史》에서 약 40건,¹⁰⁾ 《朝鮮王朝實錄》에서 약 480건,¹¹⁾ 《承政院日記》에서도 약 640건이¹²⁾ 검색되는데 이들 대표 용례는 楹을 楹內, 楹外와 같이 전각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이는<仁祖 3년>의 退柱之外, 柱外와 함께 나타남으로서 더욱 확실해 진다. 또한 楹은 기둥 중에

8) 보와 도리에 관한 내용은 이미 다음의 논제로 학회 논문에 게재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김재웅·박강철(2008), 보와 도리의 漢字表記 通用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9) 詩有覺其楹。春秋莊公丹桓宮楹。禮楹天子丹諸侯黝大夫蒼土黠。… 釋名柱住也, 楹亭也, 亭亭然孤立旁無所倚也, 齊魯讀曰輕, 輕勝也, 孤立獨處能勝任上重也。…

10) 예)068 志 22 / 禮 / 嘉禮 / 宣麻儀, 前一日, 尙舍局, 鋪王座於大觀殿上, 設案於王座南, 設二獸爐於前楹外左右, 又設詔案於殿庭中心, …

11) 예) 《太祖實錄》太祖 1卷 1年(1392 壬申) 7月 17日(丙申), 太祖卽位于壽昌宮。… 太祖下馬步行, 入殿卽位, 避御座立楹內, 受群臣朝賀。…

12) 예)인조 3년(1625년) 3월 26일(갑술), 徐景雨, 以迎接都監言啓曰, 隆政殿 缺形勢, … 則副使及殿下果牀·大小膳牀, 不得已排設於退柱之外, 似是楹外, …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서도 가장 전면에 있는 退柱를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楹이 전면의 退柱를 뜻함으로 자연히 間數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어 전각의 규모를 표현하는 용례들이 확인된다.¹³⁾ 左右長廊과 南廊은 回廊 형태로 해석되고, 회랑 크기의 표현은 楹(棟)보다는 間數가 적합하니 전면의 退柱의 의미인 楹이 間數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楹이 楹(棟)의 의미로 국역된 용례도 확인되는데, ‘無逸殿 이하 數十餘楹을 철해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¹⁴⁾

이상과 같이 楹은 전면의 退柱로서 전각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間數의 度量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楹을 楹(棟)의 의미로까지 引伸하여 사용된 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楹은 영건의궐 중 《華城城役儀軌》에서 그 용례가 두드러지는데, 外楹, 楹內, 楹內外, 前楹, 後楹, 退楹 등 보다 다양한 용어로 나타난다. 楹內는 전후면 고주열의 안쪽을 가리키고, 前楹과 後楹은 전면과 후면의 고주열이 되며, 退楹은 뒷기둥열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東北鋪樓를 설명함에 있어 ‘七楹三間’이 등장하는데, 이는 전체 7개의 기둥으로 된 3칸의 평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⁵⁾ 따라서 楹은 實入된 기둥의 표기로서 사용되지 않고, 공간을 가리키거나 규모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건의궐에서 기둥의 표기로서 일관된 柱는 그 높이에 따라 高柱와 平柱로, 단면형상

13) 《高麗史》世家 21 / 熙宗 戊辰 四年 七月 / 丁未, 改營大市左右長廊, 自廣化門, 至十字街, 凡一千八楹, 又於廣化門內, 構大倉南廊·迎休門等七十三楹, 凡五部坊里兩班, 戶斂米粟, 就賃供役, 兩班坊里之役, 始此.

14) 《太宗實錄》太宗 2卷, 1年(1401 辛巳) 7月 23日(庚戌) / 殿下宜自省躬誠慎, 消去災變, 猶恐其不及也. 今乃撤毀無逸殿以下數十餘楹, 斥大其基, 以興工役, 勞動畿內之民, 轉輸材木, 此非使民之時也.

15)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2007), 경기문화재단, 108~111쪽.

에 따라 圓柱, 方柱, 八隅柱, 놓인 위치에 따라 退平柱, 後面平柱, 外柱, 內柱, 前面柱, 間柱 등이 확인되고, 통째기둥인 樓柱가 자주 등장한다. 이들 중 특히 樓柱는 重層구조에서 上下를 잇는 통째기둥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와 材木의 크기에 따른 구분 명칭으로 쓰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¹⁶⁾

3-2. 추녀와 장혀

추녀는 영건의뢰에서 春舌로 일관되어 나타난다. 장혀 또한 長舌로 일관되었다. 목조건축용어에서 舌이 사용된 것은 추녀(春舌), 장혀(長舌), 塔舌(탑혀?),¹⁷⁾ 수서(垂舌), 양서(仰舌) 등인데, 이 중 수서(垂舌)와 양서(仰舌)는 혀의 형상을 따른 용어로 史料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없고, 塔舌는 익공이나 안초공과 함께 등장하여¹⁸⁾ 공포부재임이 확실하나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春舌는 영건의뢰를 제외한 史料 중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서 용례가 확인되지 않고, 다만 《承政院日記》에서 약 30건 정도가 검색된다. 《承政院日記》의 용례 중 가장 시대가 앞선 것은 영조 원년(1725년)의 기록¹⁹⁾으로 영건의뢰 중 가장 시대가 앞선

《昌慶宮修理所儀軌》(1633년)보다 후대이다.

그런데 영건의뢰 보다 시대가 앞선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衝椽이 확인된다.

《宣祖實錄》宣祖 11年(1578年) 1月11日, 司諫院啓: “康陵丁字閣改構, 曾未七八年, 衝椽扇椽皆拔起, 其不用意之罪大矣。”

《光海君日記》光海 9年(1617年) 11月17日, 永闕 營建都監啓曰: “江原道當初斫來衝椽, 多不中用, … 衝椽二十八條, 解氷即時着令改備上送.”

위 《宣祖實錄》의 기록은 추녀와 그 옆의 선자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光海 9년의 기록은 衝椽을 추녀라고 국역하고 있다. 또한 <한국건축사전>(장기인)에도 추녀의 한자표기에 衝椽을 포함시키고 있다.

《承政院日記》에서 衝椽의 기록은 가장 전대가 인조 6년(1628년),²⁰⁾ 가장 후대는 정조 5년(1781년)의 기록²¹⁾이고, 의례에서는 《肅宗魂殿都監儀軌》(1720년)에서 「四面衝椽」이²²⁾ 확인된다. 결국 조선시대 추녀의 용어는 衝椽으로 기록되다 이후 春舌의 표기가 생겨나 衝椽과 공존하게 되고 영건의뢰에서는 春舌로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衝椽에서 春舌로 변화된 근거는 《譯語類解》와 《倭語類解》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譯語類解》上 屋宅 17a에서 椽이 확인되는데 한글로 ‘혀’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倭語類解》上 32a에도 椽을 ‘셔’라고 한글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椽은 오늘날 서까래로

16) 材木의 크기에 따른 구분 명칭은 不等, 樓柱, 宮材, 體木, 松板, 椽木이 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不等은 다시 大不等, 中不等, 小不等으로 나뉘고, 椽木도 大·中·小로 구분되며, 劈鍊材나 治鍊材 혹은 이들이 합성된 宮材劈鍊, 治鍊宮材, 그리고 體木도 圓體木, 半體木 등 여러 세분 명칭들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材木 분류는 그 크기만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사용처까지 염두한 오늘날 보다 유용한 명칭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17) 塔舌은 御榻에 치장되는 조각물로 해석할 수 있다.(장순용)

18) 《垂恩廟營建廳儀軌》(1764년), 別工作, 手本秩, 甲申二月日, 040b, 齋室水每紙, 次四張付薄油菴一浮, 草立工出本, 無立工出本, 案草工出本, 大工出本, 塔舌出本, 行工出本, 次油紙各半張式。

19) 영조 원년(1725년) 6월 16일 (임오), 柳復明, 以戶曹言啓曰, 仁政殿班子破傷處, 今方始役修改矣. … 左右春舌及蓋板蓋瓦樑上塗灰等破傷剝落處, 亦甚浩多, 不可不一體修改之意, 敢啓。

20) 인조 6년(1628년) 5월 26일 (병술), 事甚重難, 故發遣郎廳, 帶率老匠看審, 則左右衝椽中泝, 日漸開張, 若不汲汲修改, 則將至於全門傾頽, 修補之際, 功役百倍云。

21) 정조 5년(1781년) 5월 25일 (정유), 則江陵府五臺山塔源閣上層都里木四箇, 衝椽四箇, 椽木七十箇, 大樑一箇, 衝樑一箇, 朴工板四立, 板牆十六立, …

22) 《肅宗魂殿都監儀軌》(1720년), 139b, 正殿樑上塗灰剝落處四面衝椽上改塗灰 …

訓을 달고 있지만 《譯語類解》가 간행된 1690년에는 ‘혀’로, 《倭語類解》가 간행된 1782년까지는 ‘셔’로訓을 달았다는 것이다.

椽은 혀와 ‘혀’로서 그訓이 동일하여 획수가 보다 적은 혀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椽이 혀로 교체됨은 필획이 적다는 장점과 함께 혀가 폭에 비해 특히 세장한 부재와 상응하는 논리적 연관성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衝 또한 음이 유사한 舂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도 舂이 필획이 적다는 점에서 선호될 만하다. 舂의 형상은 지붕 위 측면에서 비스듬히 내려다 본 架構의 형상과 닮았는데, 三은 서까래, 人은 마루도리와 양편으로 걸쳐진 추녀 그리고 日은 측면의 문 정도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다면 衝에서 舂으로의 교체는 상형적인 연관성도 함유한다고 볼 수 있다.²³⁾

기존연구에서는 《譯語類解補》(1775년)와 《物譜》(1770년 무렵)에 기록된 舂의 예를 들면서 ‘舂(추녀)를 나타낼 때, 이를 표기할 단일 한자나 한자어가 없었고, 의례에서는 舂을 舂舌로 표기하게 되며, 舂과 혀가 가진 본래의 의미 범, 혀와는 관련이 없이 그것의 음훈을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이라 설명하였다.²⁴⁾ 또한 ‘舂舌을 舂의 차자표기’라고 하면서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1659년)의 衝椽의 예를 들고 ‘이를 고유어 舂에 대응하는 한자어’라고 서술하였다.²⁵⁾

결국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舂을 한자표

기하기 위한 차자표기로서 舂舌이 조어되었고, 衝椽은 舂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또다른 異體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衝椽은 중국과 일본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어 한국에서 조어한 고유한자로 사료되며, 《譯語類解補》나 《物譜》가 간행되기 오래전인 앞서 제시한 宣祖 11年(1578年)의 용례가 있다는 점과 그 후 1600년대에 舂舌이 衝椽과 공존하게 되고 1800년대 이후에는 舂舌로 통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衝椽과 舂舌은 같은 연장선상에 놓인 변화과정상의 표기로 보아야 옳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다면 추녀로 불리우게 된 연유도 대각선에서 찢어 넣는 서까래와 유사한 부재라는 특성을 살려 衝椽으로 신조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衝椽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椽은訓을 따라 ‘혀’로 衝은음을 따라 유사음인 舂으로 교체되었으며 자연히 한글표기 또한 舂으로 표기되고 오늘날 추녀로 변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건축사전>(장기인)에는 장혀가 아닌 장여로 표기하고 한자표기를 長欄과 長舌로 적고 있으며 ‘장혀는 혀설자(舌字)에서 온 말’이라고 하였다. 단혀 또한 단여로 적고 短欄, 短舌로 한자표기 하였으며, ‘단려가 단여의 원말’이라 하였다. 또한 중심장여와 같이 장여를 語尾에 붙여 쓴 용어는 모두 장여로 적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건축용어사전>(김왕직)에는 장혀로 명기하고 있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장여(長欄)’로 표기되어 있고, ‘장혀’는 장여의 잘못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長欄은 중국과 일본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어 한국의 신조어로 판단되나, 한국의 사료에서도 그 용례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단독으로 欄의 용례는 확인되는데 건축 부재명칭과 관계되는 것들은 주로 ‘梁欄’으로 쓰였고, 欄은 「郎計切。棟也」라 하여 마룻

23) 물론 椽이 서까래의 뜻으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혀로 교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衝椽과 같이 두자이상으로 조합된 단어와는 달리 단독자인 椽을 혀로 교체한다면 혀의 本義와 혼동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황금연(1999), 의례의 어휘 표기 형태와 해석-연장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43집, 672쪽.

25) 오창명 외2인(2007), 서궐영건도감의례의 목재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16권 1호, 34쪽.

대임을 註解하고 있다.²⁶⁾ 《玉篇》에도 「櫪, 梁棟名。」이라 하여 보나 마룻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長舌는 영건의례에서 일관성있게 사용되었고, 《朝鮮王朝實錄》에서 2건이 확인되나 목조용어와 관계없는 용례이다. 그리고 《承政院日記》에서도 5건이 확인되나 영건의례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3-3. 공포와 斗拱

拱은 한국의 경우 《三國史記》 <屋舍>條의 용례가²⁷⁾ 가장 앞선 것이다. 拱牙가 그것인데 花斗牙와 함께 나타나고, 앞서 보에 대한 대목에서 전술하였듯이 이들은 앞에 놓인 重袱과 함께 묶어서 해석될 수 있다. 즉, 六頭品은 重袱拱牙를 禁하고, 五頭品은 重袱花斗牙를, 四頭品至百姓은 拱牙를 금한 것으로 본다면 眞骨은 重袱이 있는 拱牙가 허용되고, 六頭品은 花斗牙까지만 허용되며, 五頭品은 장식이 없는 그냥 拱牙만이 허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중복은 더욱 화려하고 웅장한 拱牙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출목이 있거나 이중 拱牙에 의한 二重지붕 형태 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용례로는 《高麗大藏經》을 들 수 있는데 <佛說藥師如來本願經>(불설약사여래본원경)에서 斗拱이²⁸⁾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成宗實錄》의 홍문관 부제학 이맹현 등이 가뭄에 대해 상소하는 기록(1481년)에서 斗

拱(共의 좌변이 손수변 扌)²⁹⁾이, 《中宗實錄》에 현부에서 사대부가 사치를 일삼고 집들을 치장하므로 험도록 하고 죄주기를 청하는 내용(1512년)에서 花拱과 草拱이³⁰⁾ 확인된다.

다음 승정원일기에서 숙종 18년(1692년)에 斗拱(共의 좌변이 손수변 扌)³¹⁾이, 영조 13년(1737년)에 拱樑가³²⁾ 확인된다.

영건의례에서는 공포와 일치하는 표기가 확인되지 않고, 다만 《華城城役儀軌》(1800)의 圖說에서 칠포나 오포(「或七或五見長安門」)의 예를 ‘包’라는 명칭으로 도설³³⁾하고 있다. 또한 工踏이라는 표기가 몇 곳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 《垂恩廟營建廳儀軌》(1764년)의 용례³⁴⁾를 보면, 「各樣工踏出草紙」는 공답을 가공키 위한 출초지를 말하고 있고, 뒤이어 「工踏等雕刻匠所用」은 공답 등 조각을 위한 공구로서 대패(옹미리, 평미리), 칼, 작은 끌 등이 사용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出草紙는 초새감을 위해 본을 뜬 종이로 여겨지고, 이 出草紙는 立工, 案草工, 行工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답은 공포부재를 칭함을 알 수 있다. 또한 《仁政

29) 《成宗實錄》成宗 12年(1481年) 6月 21日(甲子), 弘文館副提學李孟賢等上疏曰, … 今之起第舍者, 惟務奢侈, 不計其品, 樑柱則雕之以藻, 斗拱則刻之以山, 階峻而加以磨甃,

30) 《中宗實錄》中宗 7年(1512年) 閏5月 13日(丙戌), 憲府又啓曰: “近來士大夫務尙奢侈, 家舍過制, 至於花拱草拱, 皆極其麗, 至爲無等.

31) 숙종 18년(1692년) 4월 28일 (정미), 禮曹啓曰, 臣命賢, 與本曹郎廳崔蔭, 馳詣泰陵, 入香參奉崔敬基眼同, 本陵丁字閣有頭處, 詳細奉審, 則東邊大樑下斗拱, 退下五分許, 殿前御戶欹斜, 可合長四尺許, 隙廣三四尺許, …

32) 영조 13년(1737년) 8월 19일 (을해), 檉曰, … 魚有龜曰, 不但柳木, 其他雜木, 亦將爲拱樑之木, 亦宜一併翦去也. …

33) 《華城城役儀軌》卷首, 圖說, 六十九b.

34) 《垂恩廟營建廳儀軌》(1764년), 別工作, 手本秩, 甲申二月日, 40a~40b. 甲申二月日, 一今此營建時, 齋室水每紙及各樣工踏出草紙磨鍊後錄爲去乎卽爲進排事該司良中捧甘爲只爲. 後, 齋室水每紙, 次四張付薄油芘一浮, 草立工出本, 無立工出本, 案草工出本, 大工出本, 塔舌出本, 行工出本, 次油紙各半張式. 一今此營建時, 工踏等雕刻匠所用, 雄尾里, 平尾里, 刀子, 小錯, 彥尾里等打造, 次強鐵陸斤及所入炭依橫看從實入, …

26)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四, 上樑文, 思政殿上樑文(030_477d), 惟天大警動人主, … 鳴鳳巢閣. 薰風阜財. 美哉奐美哉輪. 晉室豈善於頌禱. 以次賀以次壽. 漢宮何取於糗糠. 敢因梁櫪之升. 式陳兒郎之祝. 少停攻斲. 同此歡呼. …

27)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 六頭品 室長廣不得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重袱拱牙懸魚, … 五頭品 室長廣不過十八尺, 不用山榆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袱花斗牙懸魚, …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榆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拱牙懸魚, …

28) 권10, 1342쪽, 2단, … 無一切口道苦聲琉璃爲地城關垣牆門窓堂閣樑斗拱周匝羅口皆七寶成如極樂國 …

《殿營建都監儀軌》(1805년)의 사례(11a~12b)에서 工踏이라 하여 이하 나열한 용어들이 공포용어인 것으로 보아³⁵⁾ 工踏이 공포의 異表記 중 하나임이 확실해진다.

후대로 내려오면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4)에서 工包의 용례를 볼 수 있는데, 工包와 內工包, 耳漢臺와 內漢臺로 나누어 부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栱牙, 花斗牙, 斗栱(斗拱), 花栱, 草栱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공포와 音價가 일치하는 것은 1737년의 용례인 栱枹이며, 이후 枹는 좌변의 木이 없는 包로서 나타나고, 栱 또한 工으로 교체되어 工包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4. 익공과 살미, 첨차

공포부재 중 工이 語尾에 붙는 용어는 立工, 葉工, 翼工, 頭工, 行工, 雲工, 短工, 按(案)草工, 齊工 등이다. 영건의례의 용어 중 가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단연 공포용어인데, 立工, 葉工, 翼工이 同義異體인 것은 이견이 없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부재를 칭하는 것으로 주지되고 있다.

同義異體인 익공에 관한 용례는 기존연구에서³⁶⁾ 이미 정리하여 소개하였는데 立工이나 葉工에서 점차 翼工으로 고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익공은 初立工, 初立孔, 初翼工, 單立工 등으로 나타나고, 재익공은 二立工, 二葉工, 再翼工 그리고 물익공은 無里工, 無立工, 無翼工 등이 확인된다.

《仁政殿重修儀軌》(1857)에서 大樑翼工, 童子柱翼工이 보이고,³⁷⁾ 《慶運宮重建都監儀

軌》(1904)에서는 齊工, 翼工, 雲工이 함께 나타나, 익공이 지칭하는 범위에 혼돈이 생길 여지가 있다. 童子柱翼工은 동자주에서 보방향으로 살미를 둔 부재이고,³⁸⁾ 大樑翼工은 대량 밑의 보아지의 역할로서 보방향으로 살미를 둔 부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翼工이 齊工, 雲工과 함께 사용된 용례는 다포계 공포에서 확인된다. 즉, 翼工은 익공계 공포와 다포계에서 모두 사용되는 용어로서³⁹⁾ 다포계에서 齊工, 雲工과 구분되는 더 세분된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포계에서 翼工, 齊工, 雲工은 살미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4)의 용례를 보면⁴⁰⁾ 初齊工부터 六齊工까지는 양서(仰舌)로 초새김한 살미이고, 그 위 七翼工은 수서(垂舌), 그 위 八雲工은 등그스름하게 草刻한 것이다.⁴¹⁾

行工과 頭工은 주심선상에 있는 도리방향의 부재만을 칭한다.⁴²⁾ 行工은 소위 翼工系공포에서 기둥상부의 주심선상에서 翼工과 직교결구되어 도리를 받는 부재로서 高柱에서 사용된 용례도 있다.⁴³⁾ 頭工은 多包系공포에서 주심선상에 도리방향으로 사용된 부재이다. 行工의 용례는 16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頭工은 《華城城役儀軌》(1800년)

37) 《仁政殿重修儀軌》(1857년) (15b), … 大樑翼工四箇各長六尺高二尺三寸厚四寸, 童子柱翼工八箇各長六尺高一尺七寸厚四寸, …

38) 김왕직(2007),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124쪽.

39) 김도경 외1인(1994), 영조의례를 통한 공포부재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0 n.7, 대한건축학회, 132쪽. 김왕직(2007), 앞의 책, 124쪽.

40)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4), 85a~86b, 工包는 初齊工, 二齊工, 三齊工, 四齊工, 五齊工, 六齊工, 七翼工, 八雲工이고, 內工包는 初頭工에서 八頭工까지 8개로 모두 두공으로 표기하였다.

41) 김도경 외1인(1994), 앞의 논문, 129쪽.

42) 김도경 외1인(1994), 앞의 논문, 130쪽.

43) 《仁政殿重修儀軌》(1857년) (15b), … 高柱行工十四箇各長七尺高一尺一寸厚四寸, 短花斑二十二箇各長三尺高一尺三寸厚四寸, …

35) 工踏, 長舌, 加斑長舌, 長花斑, 齊工, 翼工, 外雲工, 內雲工, 左右除, 大頭工, 小頭工, 大簷, 小簷, 都每簷, 竝簷, 按草工, 甫兒之, 山彌柱頭, 行小累, 單窠小累, 兩窠小累, 三窠小累, 廳小累, 大貼, 巡閣板

36) 김동욱 외4인(1990),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 / 조선 후기 영건의례서에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6 n.3, 대한건축학회, 7쪽.

에서 비로소 그 용례가 확인되며, 《仁政殿重修儀軌》(1857년)에서 크기에 따라 大頭工, 小頭工로 구분하였다.

안초공은 案初工, 眼草工, 案草工, 按草工의 표기가 확인되는데, ‘안’의 표기가 초기에는 案으로 표기되다 《華城城役儀軌》(1800년)에서 안의 편방에 손수번(才)을 놓은 按草工으로 나타나 후대로 고착된다. 화성의뢰에서 昌防按草工, 道里按草工, 宗樑按草工 등 위치에 따른 다양한 안초공이 확인되고,44) 《仁政殿重修儀軌》(1857)에서는 高柱按草工이 나타난다.

살미는 《昌德宮修理都監儀軌》(1647년)와 《肅宗魂殿都監儀軌》(1720년),45) 《[景宗]魂殿都監儀軌》(1724년)에서46) 沙乙尾의 표기가 확인된다. 山彌는 《華城城役儀軌》(1800년)의 圖說에서 그 용례가47) 확인되고, 《仁政殿營建都監儀軌》(1805년)에서 「山彌柱頭」가 확인된다.

살미는 침차와 직교하여 보방향으로 걸리는 부재의 총칭으로 외단부의 형태에 따라 齊工, 翼工, 雲工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침차는 도리방향부재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데, 익공계의 경우 중심선상에 놓인 것은 行工, 출목선상에 있는 것은 침차, 다포계의 경우 중심선은 頭工, 출목선상은 침차로 구분된다.48)

침차의 표기는 《昌德宮修理都監儀軌》(1647년)와 《華城城役儀軌》(1800년)에서 簾遮가 확인되고, 이후 《仁政殿重修儀軌》(1857년)에서 大簾, 小簾이 나타나며,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4년)에서 大小添差와 같은 이체가 확인된다.

3-5. 서까래

서까래는 椽으로 일관된다. 의뢰에서 椽의 쓰임은 材木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예와 部材名으로 사용된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材木의 크기에 따른 구분 명칭으로 椽木은 다시 大椽木, 中椽木, 小椽木으로 세분되며, 《華城城役儀軌》(1800년)의 券五, <措備>條에서 椽木의 크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49) 그러나 이들 연목의 크기는 모든 의뢰의 연목의 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50)

다음으로 椽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 크게 장연과 단연으로 구분된다. 장연은 영건의뢰에서 長椽으로 일관되게 표기되고, 단연 또한 短椽으로 일관되는데, 보통 長椽과 短椽은 동반하여 출현한다. 《眞殿重修都監儀軌》(1748년)에서 上大椽, 中椽, 長椽이 확인되고,51) 《景慕宮改建都監儀軌》(1776년)에서 長椽, 中短椽, 上短椽이52), 《昌德宮營建都監儀軌》(1833년)에는 長椽, 短椽, 上端椽으로53)

44) 화성의뢰에 등장하는 昌防按草工, 道里按草工, 宗樑按草工은 건립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팔달문을 대상으로 하층의 포작을 받고 있는 창방을 안고 있는 것을 昌防按草工, 상층의 고주 위에서 종보를 받고 있는 것을 宗樑按草工, 종보 위에서 종도리를 받고 있는 것을 道里按草工으로 해석하였다.(화성성역의뢰 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131쪽)

45) 《肅宗魂殿都監儀軌》(1720), 139b, 正殿樑上塗灰剝落處, 四面衝椽上改塗灰, 殿內外四面, 沙乙尾昌防等, 庫庫剝落處, 改丹青時, 四面機械所入雜物, …

46) 《[景宗]魂殿都監儀軌》(1724), 131a, 正殿樑上塗灰剝落處, 四面衝椽上改塗灰, 殿外四面, 沙乙尾昌防等, 處鳩糞汚穢之物洗滌時, …

47) 《華城城役儀軌》(1800년), 卷首, 圖說, 69b.

48) 김도경 외1인(1994), 앞의 논문, 132쪽.

49) 大椽木三千四十四箇[各長二十尺末圓徑八寸 …], … 中椽木六千三百四十六箇[各長二十五尺末圓徑七寸 …], … 小椽木三千九百九箇[各長十五尺末圓徑四寸 …], …

50) 《中宗實錄》의 기록(1541년)에서 大不等的 크기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커졌음이 확인되는 바 椽木의 크기 또한 시대에 따라 변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51) 《眞殿重修都監儀軌》(1748년), 107b, 上大椽四十次, 中椽四十次合大椽四十介, 長椽四十次大椽四十介, 仇果臺十介, …

52) 《景慕宮改建都監儀軌》(1776년), 48a, 長椽一百十二次大椽木一百十二介□□□□, 中短椽上短椽合二百二十四次大椽木一百十二介, …

53) 《昌德宮營建都監儀軌》(1833년), 55a, 長椽二百十六箇, 扇子椽一百四箇, 短椽二百五十二箇, 上端椽八十六箇, 婦椽二百二十八箇, 平交臺十八箇, 扇子蓋板九十六

구분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되는 경우는 七檁架 이상의 架構에서 장연과 단연사이에 서까래가 하나 더 걸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들을 위에서부터 단연, 중연, 장연으로 부르는데(한국건축용어사전, 김왕직), 의궤에서는 上短椽, 中短椽, 長椽 혹은 上椽, 中椽, 長椽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창덕궁의궤에서 확인되는 上端椽은 上短椽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端은 맨 위쪽 끝에 놓이는 서까래라는 뜻으로 표기되었거나 誤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⁵⁴⁾

선자연의 표기는 扇子椽으로 일관된다. 마죽연은 《文禧廟營建廳瞻錄》(1789년)와 《眞殿重建都監儀軌》(1901년)에서 馬蹄椽으로 표기한 것이 확인되고,⁵⁵⁾ 《華城城役儀軌》(1800년)와 《昌德宮營建都監儀軌》(1833년)에서는 馬足椽으로,⁵⁶⁾ 《永禧殿營建都監儀軌》(1900년)에서는 馬足椽과 馬族椽의 표기가 동시에 확인된다. 기타 1800년대의 山陵, 墓所, 園所의궤에서 모두 馬足椽으로 표기하고 있어⁵⁷⁾ 주로 사용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馬蹄椽과 馬足椽은 字義를 따른 造語이고, 馬族椽은 族이 足과 음이 같은 데서 기인된

표기로 보인다.⁵⁸⁾

부연은 겹처마를 이루는 덧댄 서까래로 이 표기가 비교적 많다. 부연의 용례는 《三國史記》 <屋舍> 條가 가장 앞서는데 「飛簷」으로 표기하고 있다.⁵⁹⁾ 이후 飛簷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孝宗]國葬都監都廳儀軌(上)》(1659년)에서 「付椽朴只五分釘每部五百介」라는 기록에서(210a) 付椽이 확인되고, 이후 《眞殿重修都監儀軌》(1748년)를 비롯한 5곳의 영건 의궤와 기타 魂殿, 國葬의궤 등에서 수차례 발견되며, 《文禧廟營建廳瞻錄》(1789년)에 까지 이른다.

付椽의 표기는 《景宗實錄》(1721년),⁶⁰⁾에서도 확인되고, 《承政院日記》에서는 총19건으로 숙종 8년(1682년)⁶¹⁾에서 정조 11년(1787년)⁶²⁾의 기록에 이른다.

1800년대에 들어 줄곧 婦椽으로 표기되는데 營建儀軌와 魂殿, 殯殿, 國葬 등의 의궤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朝鮮王朝實錄》에서는 보이지 않고 《承政院日記》에서만 세 차례(영조 16년(1740년), 정조 7년(1783년), 고종 3년(1866년)) 확인되는데,⁶³⁾ 漏水에 관한 내용들이다.

立, 上端椽蓋板八十二立, …

54) 오창명(2007)은 위 ‘端椽’의 용례를 들어 ‘短椽’이 ‘단연’의 차차표기임을 추정하였는데(36쪽), 의궤의 대부분 용례에서 長椽과 短椽은 함께 표기되었고 또 그 용례도 상당히 많으며, 확인되는 端椽의 용례는 한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短椽은 五檁架 이상의 架構에서 長椽과 함께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상대적 용어로서 차차표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55) 《眞殿重建都監儀軌》(1901년) <稟目> (85b), 内外廚房所入, … 長椽四百九十六箇次次大椽四百九十六箇, 馬蹄椽五十六箇次次大椽五十六箇, 短椽一百九十二箇次次大椽九十六箇, …

56) 《昌德宮營建都監儀軌》(1833년) <實入> (74a), … 椽木三百十八箇, 短椽二百十箇, 馬足椽二十箇, 平交臺二十五箇, 虛家柱道里各一箇, …

57)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1800년),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1805년), 《[顯穆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1822년), 《[翼宗]延慶墓所都監儀軌》(1830년) 등.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58) 김연주(2003), 영건의궤류의 차차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56쪽.

59)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

60) 《景宗實錄》 元年(1721年), 7月 20日(己酉), 敦化門東邊付椽上下層頽落。兵曹請令紫門監, 急速修改, 上允之。

61) 숙종 8년(1682년) 8월 2일 (정축), 又所啓, 仁政殿修改之事, … 惟在於前面瓦溝突起處, 及後面付椽蓋板, 因雨漏腐傷處而已, 至於殿內攀子上鋪板之成隙, …

62) 정조 11년(1787년) 6월 22일 (무오), 李亨元, 以奎章閣啓曰, 臣進詣奉諫堂奉審, 則閣內東邊斑子前日滲漏處及東邊付椽兩處, 西邊付椽一處, 東南春舌·西北春舌·西南春舌, 皆有滲濕處, 待快晴, 擇日修改之意, 敢啓。傳曰, 知道。

63) 영조 16년(1740년) 6월 7일 (병자), 南泰良, 以禮曹言啓曰, 卽接永禧殿參奉所報, 則連日下雨, 正殿西南間內曲牆中間許崩頽, 第二室烟桶滲漏, 移安廳西南邊婦椽滲濕, 御齋室烟桶及香大廳外大門, 庫庫滲漏云。

浮椽의 표기도 보이는데, 營建儀軌에서는 《健元陵丁字閣重修都監儀軌》(1764년)와 《華城城役儀軌》(1800년)에서 확인되고, 기타 《[仁元王后]魂殿都監儀軌》(1757년),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1800년)에서 확인된다. 《肅宗實錄》(1674년)의 仁和門假家에서 불이난 내용과⁶⁴⁾ 《英祖實錄》(1767년)의 태묘에 쓸 향을 맞이하고 영녕전을 봉심한 내용에서⁶⁵⁾ 확인된다.

이 浮椽의 용례는 《承政院日記》에서 무려 30건이 발견되는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인조 6년(1628년)의 ‘金光赫을 보내 宗廟를 擲奸한 결과를 보고하는 兵曹의 계’이고,⁶⁶⁾ 가장 늦은 것은 고종 4년(1867년)의 ‘宣禧宮 안의 齋室의 부연이 折落하여 누수’되는 내용⁶⁷⁾이다.

이상과 같이 부연의 표기는 삼국시대에는 飛簷으로, 조선시대에는 付椽, 婦椽, 浮椽으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중 浮椽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사용된 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연을 飛檐으로 표기하였으니 조선시대의 付椽, 婦椽, 浮椽은 한국에서 지어낸 신조어라 할 수 있으며, 처마를 뜻하는 ‘침’ 또한 중국, 일본에서는 檐으로 일관하였고, 한국은 檐과 簷을 혼용한 차이를 보인다.

64) 《肅宗實錄》1674年 10月 21日(辛亥), 夜二更, 仁和門假家火。時, 上居廬于仁和門內別室, 掖庭下輩, 入接於仁和門外, 不謹失火, 延及仁政殿後角浮椽, 下輩奔告政院。

65) 《英祖實錄》1767年 閏7月 22日(癸丑), 上祇迎太廟香於崇政殿庭, 仍詣太廟展拜訖, 命領議政金致仁, 奉審殿內。仍詣永寧殿行禮, 又命致仁奉審, 致仁以浮椽上板子有腐傷仰奏, 命禮曹判書沈鏞, 省牲省器, 禮房承旨奉審祭物, 仍爲還宮。

66) 인조 6년(1628년) 8월 20일 (무신), 又啓曰, 因傳教, 本曹郎廳金光赫發遣擲奸, 則廟中塑像, 一則兩目抉摘, 一手指將墜落, 一則兩手指破傷。廟殿前楹, 東西邊皆雨漏, 東邊, 則尤甚, 壁畫淪色。椽木三介及浮椽, 皆半腐朽。…

67) 고종 4년(1867년) 3월 17일 (신미), … 少頃, 詣版位行再行禮, 廟內奉審訖, 通禮跪啓禮畢, 上還入齋室, 中宮殿行禮還入齋室, 以司謁口傳下教曰, 宣禧宮內齋室浮椽折落處及雨漏處修改事, 分付戶曹。…

3-6. 평고대와 연합

평고대는 平高臺와 平交臺로 표기되었다. ‘平高臺’는 두 곳의 殯殿의궐에서⁶⁸⁾ 발견되고, 정조 때 《承政院日記》에서 두 차례⁶⁹⁾ 확인된다. 한편 영건의궐에서는 ‘平交臺’의 표기만 확인되고, 《承政院日記》에서도 세 차례 확인되는 등 ‘平交臺’의 표기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文禧廟營建廳謄錄》(1789년)에서 ‘罷平交臺’가,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년)에서 ‘婦椽平交臺’,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4년)에 初平交台, 《西闕營建都監儀軌》(1832년)에 ‘初再平交臺’의 용례가 발견된다.

初平交台는 서까래 끝에 걸린 평고대로 소위 초매기를 뜻하고, ‘罷平交臺’(장평고대)와 ‘婦椽平交臺’는 부연 끝에 걸린 이매기를 뜻한다. 그리고 ‘初再平交臺’는 초매기와 이매기를 함께 부르는 명칭이다.(오창명, 2007, 38쪽)

현재 <한국건축사전>(장기인)과 <한국건축용어사전>(김왕직)에는 한글표기를 평고대로 굳히고 있어 조선시대에 주를 이룬 ‘平交臺’가 어떻게 평고대로 고착되었는지는 의문이다.⁷⁰⁾

연합은 암키와의 뒷면에 맞는 골을 파서 평고대 위에 박아 대어 처마 끝 암키와를 받치는 재료 영건의궐에서는 連숨과 椽숨이 확인되는데 連숨이 주로 표기되었다. 연합은 山陵이나 魂殿 등 기타의궐에서는 連숨과 椽숨이 비슷한 출현빈도를 보이거나 連숨이 조금 많은 편이다. 반면에 《承政院日記》에서는 連숨은 한차례만이 확인되고, 椽숨은 7건에 이르며, 椽檻도 4곳에서 발견된다. 이들 連숨, 椽숨,

68) 《[孝宗寧陵]遷陵都監殯殿所儀軌》 1673년, 78b.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1683년, 216a.

69) 정조 5년(1781년) 5월 25일 (정유), 8월 22일 (임진).

70) 장인들이 구전으로 익혀 배우는 것을 고려하면 평고대는 발음이 어려우므로 평고대가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순용)

椽檻은 쓰임에 있어 구별점은 보이지 않고, 단지 연합에 대한 이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3-7. 인방과 지방

인방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건너지르는 가로 재료, 기둥을 상중하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기둥을 일체화시켜 횡력을 견디게 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며, 보통 위치에 따라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으로 구분하여 부른다.(한국건축용어사전, 김왕직)

영건의궤에서 나타나는 인방은 引方(引防), 上引防, 中防, 中引防, 引中防, 畫引枋(畫引防), 下引防 등이다. 이들 중 下引防이 비교적 용례가 적은데 이는 地防과 혼용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分閣引防, 斜窓引防 등 창호에 접미하여 문상방이나 문하방을 대신하는 용어도 확인된다.

《眞殿重修都監儀軌》(1748년)에서 引方이, 《垂恩廟營建廳儀軌》(1764년)에서 大引方, 畫引枋, 中方이 확인되는데, ‘방’의 표기가 方 혹은 枋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용례는 주로 防으로 나타나 1800년대부터는 防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인다.

‘引中防’은 ‘中防’과 언뜻 비슷하게 보이나 용례를 보면 차이점이 들어난다. 먼저 ‘中防’의 대표적 용례이다.

《景慕宮改建都監義軌》(1776년) (49b), … 累里介邊板八立, 朴只一尺丁三十二介, 連含次樓柱一介, 朴只二寸丁二百五十介, 引防三十一次樓柱七介, 中防十四次樓柱三介半, 壁楹六次樓柱一介半, 朴只一尺五寸丁十二介, …

《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년) (39b), … 連含四十六箇, 散子九十二浮, 中防三十四箇, 引防四十二箇, 遠音竹二十箇, 大童子四十箇, 小童子八十箇, 廳板一百立, 壁楹七十六箇, 雙窓壁楹八箇, 斜窓引防二十二箇, 壁楹四十四箇, 假地防十箇, 土壁楹五十二箇, …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년) (32a), … 楹木二次體木一箇, 假柱二次體木一箇, 朴只八寸頭釘四箇, 中防十次體木五箇, 引防十次體木五箇, 畫引防四次體木二箇, 土壁楹二十八次, …

이상 ‘中防’이 쓰인 용례는 ‘中防’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주로 引防이나 畫引防과 함께 열거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引中防’의 용례이다.

《西關營建都監儀軌》(1832년) (67b), … 春舌宗心木四箇, 中宗心木八箇, 累里介四十五立[邊板取用], 引中防遠音竹合一百十九箇, 斜窓壁楹二十四箇, 分閣障子雙窓壁楹合八十四箇, 長耳機三箇, …

《景慕宮改建都監義軌》(1776년) (44b), … 連含三十五箇, 散子七十六浮, 畫引防四箇, 引中防五十八箇, 半間引中防二十四箇, 假地防四箇, 壁楹八十二箇, 斜窓引防六箇, 壁楹十二箇, 遠音竹十四箇, …

‘引中防’은 ‘引防’과 함께 쓰이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위 경모궁의궤의 경우 引中防이 58개, 半間引中防이 24개이고, 畫引防과 假地防은 각 4개씩으로 대부분의 인방제는 引中防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인방이 地防으로 대체되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引防’은 상인방을, ‘中防’은 중인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引中防’은 상인방과 중인방을 통칭한다고 설명되고 있는데⁷¹⁾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수은묘의궤에서 확인되는 畫引枋은 여타의궤에서 畫引防의 표기로 확인되는데 대표적 용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垂恩廟營建廳儀軌》(1764년) (71a), … 大工二次樓柱一介, 椽二十六次大椽木二十六介, 立工四次樓柱一介, 樑心次[舊椽木取用], 行工二次樓柱半半隻, 畫引枋二次樓柱

71) 장기인은 수원성의궤를 들어 引中枋을 상인방과 중인방으로 설명하고 있다.

一介, 平交臺二次長松木一介, 椽舍八次邊板四立, 松竹五十次[裁餘木取用] …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2)》(1834년)(62a), …合樑次大不等四箇, 宗樑次體木四箇, 昌枋次體木二十一, 道里次體木二十一, 長舌次體木十三箇, 童子柱八箇次樓柱二箇, 畫引防八箇次中不等四箇, 按草工四箇次體木一箇, 翼拱三十六箇次中不等五箇, 大柱頭小柱頭合二十八箇次大不等二箇, 行工二十七箇次樓柱三箇, 畫盤四十二立次體木五箇, …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2)》(1895년)(69a), …退樑十四箇次統木十四箇, 沖樑二箇次統木二箇, 昌枋四十五箇次體木四十五箇, 半昌枋十八箇次體木九箇, 圓道里六十一箇次體木六十一箇, 半道里十八箇次體木九箇, 春舌四箇次大樑四箇, 蛇乃四箇次別大不等四箇, 長舌五十六箇次樓柱二十八箇, 畫引防二十二箇次[體木五箇統木一箇半], 童子柱二十二箇次樓柱五箇, 大頭柱二十箇次別大不等二箇, …

화인방에 대해 장기인(한국건축사전)은 ‘상인방 위와 맞보(合樑) 아래에 끼운 인방재, 양단 기둥 옆에서는 보이지 또는 안초공 모양을 새겨서 장식함’(390쪽)이라 하였고, 김왕직(한국건축용어사전)은 ‘누각형태의 복도각이나 누마루 밑에 구름이나 당초 등을 새긴 하인방’(210쪽)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상기 용례를 보면 보와 도리, 창방, 추녀, 익공, 안초공 등 주요골조와 공포재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는 와중에 畫引防이 열거되어 있는 공통점을 볼 수 있다.

다음 용례는 《文禧廟營建廳臚錄》(1789년)를 비롯한 여타 의궐에 실린 ‘畫引壁’에 관한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文禧廟營建廳臚錄》(1789년) (工作), 正堂退并九間新建所入, …小累九十五介裁餘取用, 柱頭十八介次厚正板四立, 畫引壁四介次厚正板四立, 中防十介次厚正板十立, 引防七介次厚正板七立, 椽單二介次厚正板二立, 分閣引防三介次厚正

板三立, 壁椽六次厚正板三立, …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下)》(1757년)(7b), …引防十次小不等一株樓柱四株, 中防十次小不等一株樓柱四株, 畫引壁四次小不等六株, 付椽次材木十五株, …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2)》(1786년)(29a), 丁字閣正殿三間拜位廳二間所入, …昌防二十一次樓柱二十一箇, 道里二十一次樓柱二十一箇, 長舌二十一次樓柱十箇半, 畫引壁四次樓柱二箇, 大柱頭十四次頭折取用, 小露一百二十次大椽木六箇, 童子柱八次大椽木一箇, …

위 용례를 통해 ‘畫引壁’은 인방부재들과 함께 나열되거나 ‘畫引防’과 마찬가지로 주요골조와 함께 나열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인이 설명한 화인방은 ‘畫引防’에 가깝고, 김왕직의 화인방은 ‘畫引壁’의 용례와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畫引防’과 ‘畫引壁’이 유사한 문맥속에서 표기만 다르게 쓰인 용례가 상당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표기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畫引防’과 ‘畫引壁’을 구별하여 사용했을 수도 있고, 단지 이표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3-8. 벽선과 문선

벽선은 벽체에 세로로 세워낸 부재로 인방과 마찬가지로 벽을 일정크기로 구획하여 벽체 형성을 가능케 한다. 특히 기둥과 토벽사이에 놓인 벽선은 이들 사이를 분리시키는 격리재 역할을 하며 ‘토벽선’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벽선은 壁縑, 壁椽, 壁宣 세 가지의 표기가 확인된다. 이들 세 가지 이표기가 동시에 발견되는 의궐은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1652년)로 壁縑은 창덕1소에서 壁椽은 창덕2소, 壁宣은 창경2소에서 각각 이표기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昌德一所, 昌德二所, 昌慶一所, 昌慶二所로 구역을 나누고 掘土所, 爐冶所(노야소), 木物所, 土物所로 건축재료에 따라 업무를 분담시켰으며, 각 所에 郎廳,

監役官, 書吏, 書員, 庫直, 使令, 守直軍士를 배치하여 공사를 담당케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書吏와 書員이 所마다 달랐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표기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후 1700년대 중반까지 壁植, 壁植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1700년대 중후반부터는 壁植이 주로 나타나 이후 고착되는 현상을 보인다. 다음은 벽선을 위치와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한 《景慕宮改建都監義軌》(1776년)의 용례이다.

(49b) … 累里介邊板八立, 朴只一尺丁三十二介, 連舍次樓柱一介, 朴只二寸丁二百五十介, 引防三十一次樓柱七介, 中防十四次樓柱三介半, 壁植六次樓柱一介半, 朴只一尺五寸丁十二介, 板門六隻次舊大樑四介以五宮撤毀中取用, …

(50b) … 井子板及板壁漆次丁粉三斗, 三碌二十二斤十二兩, 阿膠十五斤, 龍脂板次邊板十立, 朴只五寸丁四十介, 土壁植八次邊板二立, 朴只五寸丁二十四介, 中衿八次邊板二立, 家梢所入眞長木四十介, 根木三同, …

(85b) … 引中防八次末端木四介, 門筵骨壁植并十二次樓柱四介, 朴只一尺丁十二介, 信防六次樓柱一介, 紗籠三間次樓柱三介, 朴只六寸丁二十二介, 朴只五寸丁十二介, 箭門六隻次樓柱三介, 屯太次樓柱一介, …

(49b)는 引防, 中防에 이어 壁植을 나열하고 있어 벽체를 구획하는 인방재들을 관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50b)는 龍脂板(화방벽의 옆면을 아무리기 위해 기둥 옆에 세워 대는 널)에 이어 기둥과 벽체 사이에 놓이는 土壁植, 벽체를 구성하는 中衿과 根木이 나열되어 벽체와 기둥의 격리재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85b)는 紗籠, 箭門, 屯太 등 창호와 관련된 내용들로 門筵骨壁植은 창호가 달려 벽선이 창문틀을 겹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⁷²⁾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이와 같이 벽선은 벽체를 구획하는 기능의 ‘벽선’과 벽체와 기둥의 격리재로서 ‘토벽선’ 그리고 창문틀을 겹치는 ‘문얼굴벽선’으로 구분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벽선’과 ‘토벽선’은 현대에도 사용하는 용어이나 ‘문얼굴벽선’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문선 혹은 문설주로 불리고 있다.

‘토벽선’은 土壁植 혹은 土壁植의 표기가 확인되고, 《華城城役儀軌》(1800년)에서 柱壁植이,⁷³⁾ 《仁政殿重修儀軌》(1857년)에서 高柱壁植⁷⁴⁾의 용례가 나타나는데 토벽선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문설주’는 門於骨壁植과 《文禧廟營建廳臚錄》(1789년)에서 門壁植의 표기가 나타나고, 分閣壁植, 斜窓壁植, 分閣障子雙窓壁植, 斜窓壁植, 雙窓壁植 등 창호명을 접두한 용어들이 다수 확인된다.

植單 혹은 宣單의 용례가 문희묘등록에서⁷⁵⁾ 네 차례 확인되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1) … 畫引壁四介次厚正板四立, 中防十介次厚正板十立, 引防七介次厚正板七立, 植單二介次厚正板二立, 分閣引防三介次厚正板三立, 壁植六次厚正板三立, 朴只九寸頭釘六介, 土壁植二十六介次邊板九立, 朴只四寸頭釘七十二介, …

(2) … 引中防五十介次內[三十四介前排取用 十六介賃用], 宣單四次體木二介, 門壁植六介體木三介, 朴只七寸頭釘十二介, 中衿次小小椽木七十二介, 槩次眞長木一百四十四介, 根木十六丹, …

72) 물얼굴은 문상방과 문하방 그리고 문설주를 모두 싸잡아 부르는 명칭으로, 음을 따서 於骨, 筵骨, 齡骨 등으로 표기되었다.

73) 《華城城役儀軌》(1800년)

74) 《仁政殿重修儀軌》(1857년) 殿宇尺量 (18a), … 上下層修粧, 高柱壁植十四箇各長十八尺九寸廣七寸厚五寸[前排], 下層四面引中防三十六箇內四箇各長十八尺五寸高一尺厚五寸內[一箇新備三箇前排], …

75) 《文禧廟營建廳臚錄》(1789년) 工作.

다음은 檣端의 용례이다.

《顯思宮別廟營建都監儀軌》(1824년)
(49b) … 引中防各六, 檣端四, 加地防二
以上體木三箇, 中衿二十六次邊板四立,
槩次眞長木六十箇, 根木八同, …

《昌德宮營建都監儀軌》(1833년) (56a),
大造殿四十五間, … 畫引防十二箇, 引中
防一百二十一箇, 假地防二十五箇, 遠音
竹二十四箇, 大童子四十八箇, 小童子一
百十二箇, 廳板一百三十六立, 檣端一箇,
長壁檣七十八箇, 短壁檣四十二箇, 斜窓
壁檣二十八箇, 土壁檣五十二箇, …

檣單과 檣端은 이표기로 문설주로 해석하
고 있다.(한국건축사전, 장기인) 그런데 위 용
례 (2)에서 宣單과 門壁檣이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선단은 문벽선 즉, 문설주와 구
별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선단이 문설
주의 이표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용례(1)
에서 檣單, 壁檣, 土壁檣이 줄지어 열거된 것
으로 보아 선단은 벽선이나 토벽선과도 구별
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사공의뢰
의 檣端 용례는 벽선이나 문벽선 등 관련 용
어가 없어서 정황을 판단하기 어렵고, 창덕궁
의뢰에서는 大造殿 45間에 실입된 물명 중
長壁檣이 78개, 土壁檣이 52개등 상당히 많은
물량이 투입된 반면 檣端은 단 1개에 불과하
여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檣單(檣端)은 용례를 보아 문설
주의 이표기로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벽선
이나 토벽선으로도 볼 수 없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결론짓기 어렵다.

3-9. 귀틀

귀틀은 진전의뢰와 수은묘의뢰에서 歸機로,
그 외는 주로 耳機로 표기되었으며, 耳機로 고
착되었다. 오늘날 귀틀은 장귀틀과 동귀틀로 구
분된다. 장귀틀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길게 건
너지른 부재이고, 동귀틀은 장귀틀 사이에 일정

한 간격으로 짧게 건너지른 부재로 구분된다.

그런데 의뢰에서 확인되는 귀틀 명칭은 상
당히 혼란스럽다. 진전의뢰(1748년)에서는 舍
歸機, 同歸機, 경모궁의뢰(1776년)에서는 同耳
機과 短耳機, 창덕궁의뢰(1833년)는 長童耳
機, 童耳機, 耳機, 창경궁의뢰(1834년)는 長
童耳機, 短童耳機, 耳機로 구분하여 표기하였
다. 이들을 물량과 함께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귀틀의 명칭과 물량

청관	귀틀 1	귀틀 2	귀틀 3	여모
208개	舍歸機 22	同歸機 5	-	-
404개	耳機 62	短耳機 16	同耳機 2	12
650개	耳機 63	童耳機 10	長童耳機 2	6
470개	耳機 54	短童耳機 8	長童耳機 2	6

1.진전의뢰, 2.경모궁의뢰, 3.창덕궁의뢰, 4.창경궁의뢰

이들 네 가지 용례를 그 물량과 함께 살펴
보면 진전의뢰의 경우 두 가지 종류의 귀틀이
열거되어, 수량이 많은 舍歸機이 오늘날 동귀
틀에 해당하고, 5개로 수량이 적은 同歸機이
오늘날 장귀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경모궁의뢰를 비롯한 나머지 용례는
귀틀 종류가 3가지로 열거되어 동귀틀과 장귀
틀로 쉽게 가를 수 없다.

이들 세 가지의 표기는 그 수량에 따라 귀
틀 1과 2, 3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모두 耳
機로 표기된 귀틀 1은 가장 수량이 많아 가장
작은 귀틀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크기는
귀틀 2, 그리고 가장 큰 귀틀이 귀틀 3일 것
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다면 가장 작은 귀틀은 그냥 耳機
로 표기하였고, 그 다음 크기와 가장 큰 크기
의 귀틀을 短耳機과 同耳機, 童耳機과 長童
耳機, 短童耳機과 長童耳機로 구분하여 표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귀틀 종류가 3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대청공간이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늘날 장귀틀과 동귀틀의
구분과는 다를 수 있다.⁷⁶⁾

4. 용어의 이표기와 변천

목부재 용어의 용례를 바탕으로 通時的으로 圖示하여 용어의 생성과 변천, 도태 등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코자 하였다. 통시적 도시는 조선시대(1392~1896년)에 한정하고, 1633년은 영건의례 중 가장 시대가 빠른 《昌慶宮修理所儀軌》가 편찬된 해로 그 이후로 영건의례의 용례가 반영되었다. 출현시기에 도시된 용어는 語素 즉, 파생을 일으키는 기본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파생된 용어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하였다.⁷⁶⁾

본 출현시기의 도시는 영건의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영건의례가 DB가 완전치 않은 관계로 낱말이 육안으로 서면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의 여지가 있다. 특히 <實入>條를 중심으로 탐색되었고 그 외 사료 또한 DB가 완전한 《朝鮮王朝實錄》 등 주요 사료만을 대상으로 검색한 한계를 지니며, 영건의례에 등장하는 모든 표기를 반영치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⁷⁸⁾ 이러한 한정된 사료에 의한 출현시기의 도시는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기 쉬운바 그 통시적인 흐름과 개괄적인 경향의 파악 정도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향후 완전한 DB와 더 많은 사료들을 바탕으로한 미시적인 탐구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용례와 그 출현시기를 고찰한 결과 용어가

76) 현재 귀틀의 세부명칭에 관한 정의와 長耳機과 長童耳機이 같다고 설명되는 등 혼란스러움이 지적된다. 김연주(2003년)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長耳機과 長童耳機이 같다는 기존의 설명에 異論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대청공간의 규모에 따라 귀틀이 세가지로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치 않은 결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長耳機과 長童耳機은 각기 다른 대청 규모에서 나타난 명칭으로 同一에 관한 是非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77) 예를 들어 보의 경우 梁, 樑, 樑, 楸의 출현을 도시하고, 파생어인 大樑, 衝樑, 從樑 등은 도시에서는 생략하고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78) 보와 도리의 출현시기는 김재용·박강철(2008), 앞의 논문, 338쪽 참고.

다양하게 파생되었음은 물론 同義異體 즉, 같은 부재를 칭하는 용어로서 여러 가지 표기가 공존 혹은 변천하는 변화상을 볼 수 있다.

먼저 오랜 기간동안 異體 없이 쓰여진 대표적인 용례는 기둥이다. 기둥은 楹과 柱를 語素로 들 수 있다. 楹은 宋代 《營造法式》과 《高麗史》에 등장하는 용어로 조선시대까지 전면의 退柱로서 전각의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間數의 度量으로도 꾸준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둥의 의미로는 지속적으로 柱가 사용되었고, 공사에 투입된 부재를 기입한 영건의례의 내용에서는 柱만 사용되었다. 柱에서 파생된 용어는 高柱와 平柱, 圓柱, 方柱, 八隅柱, 退平柱, 後面平柱, 外柱, 內柱, 前面柱, 間柱, 樓柱 등을 들 수 있으며, 크기와 단면형상, 위치에 따라 파생된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 중 高柱와 平柱, 樓柱는 주요 사료에서도 사용된 용어들이고, 나머지 단면형상이나 위치에 따른 파생용어들은 보통 영건의례에서 사용된 용어들이다.

다음으로 異體의 생성과 도태가 가장 활발한 용례는 ‘보’를 들 수 있다. 보는 梁, 樑, 楸, 樑를 語素로 다양한 파생용어를 나았다. 신라시대에 梁이 通用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고려시대에 樑과 楸이 출현하나 계속 梁이 주를 이룬다. 조선시대에는 梁과 樑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목조 용어로서 樑이 通用된다. 1500년대부터 楸의 출현이 두드러지고, 1700년대에 이르면 楸의 도태와 함께 樑가 선택되어 사용된다. 1800년대에 《華城城役儀軌》를 기점으로 돌연 樑으로 通用되는 현상을 보이며 樑도 도태되어 간다.⁷⁹⁾

樑에서 파생된 용어는 주요 사료의 경우 각 실의 정면 간살과 측면 간살의 크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脊樑과 過樑이 대표적이고,

79) 김재용·박강철(2008), 앞의 논문, 32~41쪽.

五樑三架와 같이 측면 크기를 표기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栱과 椽은 樑의 異表記로 한국에서 그 쓰임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파생어 또한 語素로서의 표기만 다를 뿐 파생어도 차이점이 없다. 다시 말해 大樑과 大栱, 宗樑과 宗椽, 從栱은 동의어체인 것이다. 다만 接頭語 혹은 接尾語의 표기 또한 異表記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종량의 경우 從에서 후대에 宗으로 고착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同義異體인 용어는 대량, 종량 외에 退樑(退栱, 退椽), 衝樑(衝栱), 曲樑(曲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語素가 樑으로 고착되거나 자연히 退樑, 衝樑, 曲樑으로 고착된다.

接頭語의 異表記가 나타나는 용어들은 앞서 설명한 종량 외에 합장보를 들 수 있는데, 합장보는 合掌栱, 合長椽, 合掌椽, 合粧椽, 合樑으로 표기되었고, 후대에 合樑으로 고착된다. 한편 接尾語가 異表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아지가 대표적이다. 浮阿只, 樑阿只, 樑兒之, 樑兒之, 樑奉, 樑阿支, 甫兒只, 保兒只 등의 용례가 나타나는데, 보에서 파생된 용어들은 語素가 樑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따르나 유독 보아지만은 假借語로 고착되는 특이함을 보인다.

특히 樑奉의 표기는 후대에 字義를 따라 新造語된 대표적인 표기로서 보아지의 여러 표기 중 樑奉을 제외한 나머지는 音借字에 해당된다. 樑奉만이 字義를 따른 조어로서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용례가 없는 한국의 新造語로 후대에 의도적으로 조어진 것이다.

하나의 語素가 여러 용어에 사용된 대표적인 표기는 工이다. 工은 공포의 표기로 사용된 것과 익공이나 운공, 행공, 두공, 안초공 등 공포부재 용어로 사용된 경우로 구분되며, 그 외 대공이나 박공의 표기에도 사용되었다.

공포의 표기는 크게 ‘공’의 표기에 주목되는데, 한국에서는 栱과 工이 사용되었다. 栱은 栱牙와 斗栱, 花栱, 草栱, 栱枓가 확인되었고, 栱牙는 통일신라시대의 용어로 花斗牙와 함께 공포의 한 형태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는 고려이후에 사용된 용어이다. 斗栱은 고려이후 조선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공포를 칭하는 용어로 해석되고, 1512년에 나타나는 花栱, 草栱은 공포를 치장하는 사치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공포의 음과 일치하는 표기인 栱枓는 1700년대에 나타나는 용어로 비교적 후대의 것이다.

工이 공포의 표기로 사용된 것은 工踏과 工包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工踏은 그 이하 공포용어들을 나열하거나, 工踏出草紙라 하여 공포재의 조각에 관한 내용에 사용되었으며, 날개의 공포재인 경우는 工踏木으로 표기하였다. 공포의 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工包 혹은 內工包로 나타난다.

한편 工이 공포부재의 세부적인 용어 표기로 사용된 것은 익공, 운공, 제공 등 다양하며, 이들 중 異表記가 많은 것은 익공이다. 익공은 立工, 葉工, 翼工으로 표기되었는데, 후대에 翼工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인다. 익공은 위치에 따라 初翼工, 再(二)翼工, 無翼工 등의 세분명칭이 사용되었고, 大樑翼工, 童子柱翼工과 같이 공포 이외의 위치에서도 보아지의 역할로서 지칭되기도 한다.

중국의 표기와 偏旁이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용어는 防을 들 수 있다. 防은 昌防(昌方, 昌枋), 平防, 引防, 地防, 畫引防, 耳防, 散防 등 중국의 용어 표기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보인다. 한편 方의 편방에 木이 결합된 형태인 枋은 중국의 표기로 額枋 등 가로부재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영건의궐의 용례에서 枋의 표기가 나타나기는 하나 이는 중국의 枋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

나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防으로 표기되었으며, 枋은 方과 함께 소수 사용된 것으로 보아 方의 편방에 木을 결합하여 목조용어임을 강조하는 문자습관에 의한 결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편방에 木을 결합한 표기는 산자의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산자는 散子和 撒子, 散坐로 표기되고, 散子が 주를 이룬다. 撒子是 撒子板, 散坐板과 같이 接尾하여 파생된 용어로 나타나는데 용례가 드물고, 散子 역시 散子吐木 등 세분용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撒은 산자의 표기를 위해 조어진 한국의 신조어로서 보편적으로 쓰인 散의 좌변에 木을 결합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끝으로 단순한 借字표기로 잘못 해석되었던 대표적인 용례는 ‘추녀’를 들 수 있다. 기존 풀이는 ‘춘혀’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그音を ㅌ 春舌이 등장하였다고 주지되어 왔다. 그러나 추녀는 衝椽으로 造語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新造語이다. 이후에 春舌로 그 표기가 바뀌어 일관되는데, 椽은 舌과 ‘혀’로서 그 訓이 동일하여 획수가 보다 적은 舌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衝 또한 ㅌ音이 유사한 春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春은 추녀의 형상과 닮은 상형적 연관성도 함유한다.

용례의 표기가 주목되게 변화되는 시점은 《華城城役儀軌》의 편찬이라 할 수 있다. 보의 경우 1500년대부터 椽의 출현이 두드러지고, 1700년대에 이르면 椽의 도태와 함께 樑가 선택되어 사용되는데, 1800년대에 《華城城役儀軌》를 기점으로 돌연 樑으로 通用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보아지의 예를 들면 浮阿只, 樑阿只, 樑兒之 등으로 표기되던 것이 화성의궤에서 樑奉으로 通用되는데, 樑奉의 표기는 이제껏 사용되지 않은 표기로 중국

과 일본의 용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화성의궤의 기록 시점에서 新造語된 것이다. 이를 통해 ㅌ音을 따라 假借되던 표기들이 字義에 맞는 용어로 造語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연유는 화성의궤가 活字에 의한 인쇄본이라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華城城役儀軌》는 영건의궤 중 手記가 아닌 活字에 의해 작성된 대표적 활자 의궤이다. 활자에 의한 인쇄는 字形의 통일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자에 대해 俗字와 같은 異體字나 劃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의 형태의 미소한 차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활자를 사용함에 있어 椽나 樑, 浮阿只, 樑阿只, 樑兒之와 같은 異表記들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의도적인 표기의 通用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樑奉과 같은 字義를 따른 새로운 新造語가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활자화로 인해 개개 字의 異體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字의 결합에 의한 단어의 異體는 여전히 잔존할 여지가 있다. 가침장 혀가 그 한 예인데 加簷長舌와 加添長舌의 표기가 화성성역의궤에 공존하여 나타난다.

5. 결론

영건의궤에 실린 목부재용어를 중심으로 용례를 고찰하고 그 출현시기를 통시적으로 살피어 용어의 생성과 도태 등 전반적인 변천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건의궤에 실린 건축용어는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적은 <財用>과 실제로 공사에 투입된 각종 物種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實入> 혹은 <所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實入>에

기록된 物名은 部材名과 鍊匠名, 容器名으로 구분되고, 부재명은 다시 木部材, 石部材, 鐵部材, 土部材, 기타로 세분된다. 이들 중 木部材는 主要骨組, 栱包, 지붕架構와 처마, 壁體와 窓戶, 天障과 마루로 구분되며, 의례에 나열된 세부 부재 명칭의 순서는 시공의 순서와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례 고찰 결과 音價를 기준으로 약 240개 정도의 목부재 용어가 추출되었고, 오늘날의 용어 쓰임과 차이를 보이는 용례가 확인되는데 선자귀와 귀틀의 세부 용어가 그 대표적 예이다.

목부재 용어는 다양하게 파생되었음은 물론 同義異體 즉, 같은 부재를 칭하는 용어로서 여러 가지 표기가 공존 혹은 변천하는 변화상을 볼 수 있었다. 세부용어의 파생은 語素를 根幹으로 증식되는 특성을 갖고, 異表記가 생겨나는 현상은 중국의 표기를 따르거나 字義에 의한 한국의 新造語, 音을 假借한 借字表記 등 복합적인 造語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二言語體系라는 當代의 특수성과 관계된다.

오랜 기간 동안 異體 없이 쓰여진 대표적인 용례는 기둥과 서까래, 문, 창 등을 들 수 있다. 기둥은 영건의례에서 柱로 표기되는 일관성을 보이고, 楹은 實入된 목부재의 표기가 아닌 공간이나 규모를 표현기 위해 사용되었다. 서까래는 椽으로 일관 표기되었고 樓柱와 椽木은 材木의 분류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異體의 생성과 도태가 활발한 용례로는 보와 보아지, 공포 부재 등 다양하다. 이체가 생긴 이유는 소리를 빌려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借字표기, 偏旁에 木을 결합하여 목부재임을 한정·강조한 한국 고유 한자, 중국의 표기 등이 섞인 결과이다.

借字표기의 대표예로 추녀를 들 수 있다. ‘추녀’는 ‘춘혀’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그音を 딴 春舌이 등장하였다고 주지되어 왔으

나, 한국의 신조어인 衝椽으로 造語되었고 이후 春舌로 그 표기가 바뀌어 일관되다. 椽은 舌과 ‘혀’로서 그 訓이 동일하여 획수가 적은 舌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衝 또한 音이 유사한 春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春은 추녀의 형상과 닮은 상형적 연관성도 함유한다.

偏旁에 木을 결합한 한국의 신조자는 산자의 표기인 檄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벽체부재인 椳와 槩와 같이 借字표기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표기와 偏旁이 차이를 보이게 보이는 예로 창방, 인방 등의 防이나, 첨차의 簷을 들 수 있다.

용어는 語素를 根幹으로 증식되어 세부용어를 파생시키는데 익공, 행공, 두공, 제공, 운공 등의 工이나 창방, 인방, 평방, 지방 등의 防, 층연, 장연, 단연, 선자연, 마죽연의 椽 등 예로 들 수 있다.

용례의 표기가 주목되게 변화되는 시점은 《華城城役儀軌》의 편찬이라 할 수 있다. 《華城城役儀軌》는 영건의례 중 手記가 아닌 活字에 의해 작성된 대표적 활자 의례이다. 활자에 의한 인쇄는 字形의 통일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데, 異體字나 劃數, 그리고 획의 미소한 차이 등 통일이 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字形의 통일과 함께 의도적인 표기의 通用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영건의례에 실린 건축용어 중 木部材 용어만을 고찰한 연구의 한계를 지님으로 향후 石部材, 鐵部材, 土部材 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또한 더욱 많은 자료의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용어의 미시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宋·李誠, 營造法式, 中國書店, 2006.
2. 梁思成, 清式營造則例, 青華大學出版社, 2006.
3. 伊藤要太郎, 匠明, 鹿島出版會, 2004.
4. 김재웅·박강철, 보와 도리의 漢字表記 通用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02
5. 김동욱 외 4인, 조선시대 건축용어 연구 - 조선후기 營建儀軌서에 기록된 부재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6 n.3, 1990.06.
6. 김도경·주남철, 화성성역의례를 통한 공포부재의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0 n.1, 1994.01
7. 이연노, 韓國傳統木造建築의 보에 關한 研究 - 栱包와 지붕틀과의 結構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2002.08.
8. 오창명·손희하·천득염, 서꺾영건도감의례의 목재류 어휘 분석 연구, 건축역사연구, v.16 n.1, 2007.02.
9. 황금연, 儀軌類의 漢字 借名 表記 研究, 국어국문학과, 전남대학교 박사, 1997.02.
10. 김연주, 營建儀軌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국어국문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 2003.08.
11. 심대섭·주남철, 인정전 의례에 기록된 공포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5 n.6, 대한건축학회, 1989.12

A study on the examples and changes of wooden member terms in Yeonggeon-euigwe

Kim, Jae Ung

(Ph.D.)

Lee, Bong Soo

(President. Samjin architects offic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xamples and changes of wooden member terms in Yeonggeon-euigwe(營建儀軌)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As a result of examining examples, about 240 wood member terms were found on the basis of phonetic value and examples different from today's term use were also confirmed.

Wood member terms were derived in variety and synonym and different style, that is, coexistence or transition of several notations as the term indicating the same member was found. Derivation of detail terms has the characteristic increasing on the basis of morpheme and formation of different notation followed Chinese notation or was caused by complex coinage features like a coined word of Korea by the meaning of a word and borrowed character notation borrowing sound and it is also related to the specificity of that time which had dual language system.

The typical examples without different style for long were pillar, rafter, door and window. Examples with active generation and selection of different styles included beam, capital and bracket-system terms. Different styles were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several notations including borrowed character in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 notation borrowing sound, Korean unique character emphasizing and limiting combination of 木 (wood) with side of character and Chinese.

Period showing remarkable change of example notation was the compilation of 《the Hwa-Sung-Sung-Euk-Eui-Gue》華城城役儀軌. 《the Hwa-Sung-Sung-Euk-Eui-Gue》 is the representative type uigwe made by printed type not by handicraft. Printing by type accompanies unification of the shape of a character necessarily and it was considered that it resulted in the unification of character of different style, the number of strokes and minute difference of strokes, and it was interpreted that common use of intentional notation with the unification of the shape of a character was achieved.

Keywords : Yeonggeon-euigwe, Architecture Terminology
